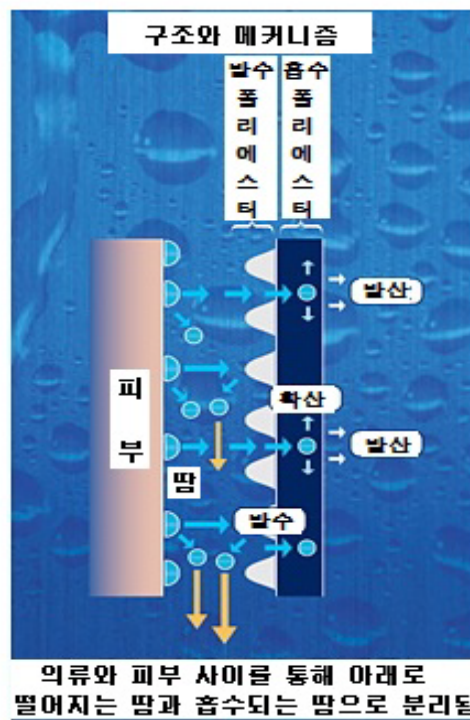


진화하는 스포츠용 기능성 소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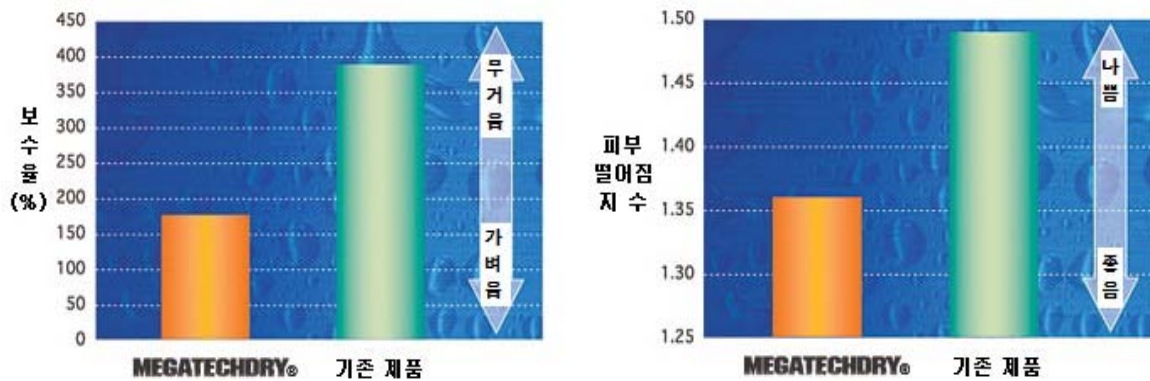
도요보 STC

2015년 봄·여름용 스포츠용 소재로 유럽과 미주지역으로의 수출호조를 보이고 있는 경량 고밀도직물을 시작으로 하여 합성섬유 메이커에서는 경량성이 높은 섬유제품이나 땀열룩 방지 소재 등 다양한 고기능성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도요보 STC는 의류와 피부가 닿는 부분을 이중 십자단면 발수 폴리에스터를 요철형태로 배치하여 접촉면적을 작게 하여 피부에서 쉽게 떨어지는 특성이나 건조한 느낌을 향상시킨 다량 발한대응소재 ‘MEGATECHDRY PLUS’를 개발하였다. 이 소재의 구조는 빠르게 땀을 흡수하는 부분과 흡수한 후 배출되지 못하는 땀을 의류의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는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어 다량 발한시에 흡수층으로 이행한 땀이 역으로 넘어오지 않게 된다.



<MEGATECHDRY PLUS 구조와 땀 배출 메커니즘>



<MEGATECHDRY의 보수율과 피부 들러붙음성 비교>

또한 풀덜(full-dull) 이중 십자단면 폴리에스터의 2층 구조로 된 적외선 차단이나 차열효과, 방투과성을 높인 원단 ‘LUXURYWHITE’를 개발하였다.

니트소재 ‘MOANA’는 100% 폴리에스터 장섬유로 만든 소재로 높은 강도와 흡한속건성을 함께 가진 소재로 원단의 안과 밖의 편성게이지 차이를 부여한 쿼터게이지 니트(편성물의 표면과 이면의 게이지 비율 1:4로 하여 편성한 제품)로 이중 표면으로 표면감이나 피부촉감, 단섬유 느낌 등을 낼 수 있다.

내구마모성 박지 직물인 ‘POLYCARBONATED’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계 고분자를 원단에 코팅하여 보호 코팅층을 만들어 마모내구성을 높였다. 현재 의류로의 전개는 초기단계에 있다.



<POLYCARBONATED>

♣ 섬유뉴스(2013.12.11)